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관련 생태학적 변인 연구

박 소 영*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문 혁 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교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동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는 행해지고 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며,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한 시도 또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5·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변인(학년, 출생순위, 자아개념),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황변인(과외유무, 지역차이)이 남·여 아동 각각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893(남아 453명, 여아 440)명이다.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1985)에서 개발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와 박성연·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도구를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1.0을 사용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다. 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로 구하였고,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변인, 부모변인, 상황변인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련 I(소외감)’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남·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일반자아·학습자아·총자아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남·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남·여 아동 모두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남·여 아동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총스트레스’에서 남이는 아동변인의 학년, 여아는 일반자아 그리고 남·여 아동 모두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상황변인의 지역에서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남이는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여아는 아동변인의 일반자아,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설명력이 나타났다.